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세계 선교는 우리가” 21세기를 향한 속사도행전 운동에 적극 참여를

행동 강령 및 동원 일정 발표

교회 설립 37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오는 8월 26일부터 전개되는 21세기를 향한 속(續)사도행전 운동이 앞으로 두 주 남았다.

“세계 선교는 우리가”라는 주제 아래 26일부터 9월 2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있는 이 새벽기도 운동은 AMC 대회를 통해 전세계에 새벽기도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속사도행전 운동 참모본부는 AMC 대회의 주관 교회인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28일(화)과 9월 1일(토)을 전교인 총동원의 날로 정하고, 주력 교구와 교회학교 부서별 동원 일정을 발표하였다. 참모본부는 먼 거리 교인들을 위해 교회 내에 숙소를 마련하고, 사랑의 차 함께 타기 운동(차량 동승)과 사랑의 전화 걸기 운동(각 교구별로 연

교구 및 교회학교 부서별 동원 일정

날 짜	8. 26 (주일)	8. 27 (월)	8. 28 (화)	8. 29 (수)	8. 30 (목)	8. 31 (금)	9. 1 (토)	9. 2 (주일)
교 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및 교회학교	탁아부~고등부		전교인				전교인	대학부, 청년부, 직장전도교육부

91년도 신임 임직자 후보 교육 실시 9월 6일과 7일에

당회는 1991년 신임 임직자 후보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했다.

신임 임직자 후보 교육은 9월 6일(목)부터 7일(금)까지 오전·오후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교육 대상은 91년 신임 남녀 서리집사, 권찰이요 갈릴리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신임 임직자의 교육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섬김의

자세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위와 같은 교육 목적을 달성코자 세 개의 교육 목표를 설정했는데 첫째, 신앙의 모범이 되는 청지기, 둘째, 생활의 모범이 되는 청지기, 셋째, 섬김의 모범이 되는 청지기로 정했다.

주제 성구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딤후 1:12하)이고 주제 찬송은 나의

죄를 정결하사(350장)이고, 개강예배는 9월 6일 오전 10시 갈릴리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윤용규 목사, 송태근 목사, 최인근 목사와 김주아 전도사가 참여해 직분자의 자격 요건, 직분자의 경건 생활이란 제목으로 강의하게 되며 이 교육을 마친 자에 한해 서리집사, 권찰로 90년 12월 중에 임명받게 된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90아시아선교대회를 목전에 두고 충현교회 가족들은 손님맞을 준비에 한창입니다. 44개국에서 2천여 명의 주님의 종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영광으로 알고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준비위원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주중에도 도처에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대회가 틀림없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 주변의 화단 정리도 맡김이 되었고 50개의 워크숍이 열릴 소석관도 성도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손색없는 세미나실도 아담하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가 마치면 어김없이 비를 들고 교회들을 쓸고 계신 소망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가 하면 주일 오후 교회 화단은 돌보시는 어느 교구의 남전도회원들, 그리고 수요일 오후에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교회 청소에 땀을 흘리시는 여전도회원 모두가 충현의 영적 자산이며 자랑입니다. 유숙할 삼정호텔, 유스호텔, 라마다 르네상스호텔로부터 교회로 오는 도로변 청소상태나 각종 벽보 등은 문화시민의 긍지에 침을 뱉는 꼴이 되어 있고 특히 상점들이 도로변을 침범하고 통행을 어렵게 하는 것은 시민 스스로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지만 당국자의 협력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번 아시아선교대회는 한 교회의 행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잔치일 뿐만 아니라, 35억 아시아인 전체의 사활이 걸린 집회이니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이 있어 줄 것으로 믿고 충현교회 성도들은 더욱 기도와 헌신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8. 12

이 중 윤 목사

위임목사 동정

기독실업인회 전국 대회 설교 조용학 영수 순교비 제막 예배 설교

이중윤 위임목사는 지난 8월 한편 이 목사는 오는 14일 경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되었던 남 김해로 내려가 조용학 영수(조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전국 인제 장로 선진) 순교 50주년 기념비 제막 예배에 참석한다. 이 사는 개회예배에서 “성숙”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였다.

한편 이 목사는 오는 14일 경 남 김해로 내려가 조용학 영수(조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전국 인제 장로 선진) 순교 50주년 기념비 제막 예배에 참석한다. 이 사는 개회예배에서 “성숙”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였다.

일어예배부 부장에 송환창 장로

충현조기교육센터 부장에 이종석 장로

당회는, 충현교회 설립 제 37 또한 충현조기교육센터(장애인 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신설되 조기교실)의 부장으로 이종석 장로는 일어예배부의 부장으로 송환 창 장로를 임명하였다.



성경 강해

이 중 윤 목사

나는 양의 문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10:7-9)

유대 지방의 양들은 산비탈에 만들어진 우리 속에서 보호되어지는데, 그 우리는 돌로 된 담이 쳐 있고 문은 없습니다. 문 앞에는 목자가 서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든 이리떼들과 몸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십니다.

자기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특별한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양의 문은 다른 어떤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미 양우리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밖에 있는데 예수님이 양우리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데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1. 하나뿐인 양의 문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다른 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혼합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기독교는 혼합주의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절대로 다른 것은 용납하지 않아야 그 것을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것도 다 인정하고 자기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가 아닙니다. 벌써 그때는 종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종교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할까.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결코 다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를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도를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 중국에서는 공산주의가 사람들 마음속에 허무를 일으켜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는 우리에게 진도를 하기 위해 발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씨뿌리기 전에 먼저 발을 갈 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외에 다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어느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대화한다고 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며, 그 사람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진리를 어떤 객관적인 사건으로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곧 진리이고 문이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 주신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일까요?



먼저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주님께서 만드신 새 길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새 길이 되시고 산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해놓으시고, 8절에서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럼, 나보다 먼

지 온 자는 누구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도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빼앗아가거나 가져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마치 제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강도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만 통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예수가 아니면서도 자기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에게로 와야 된다고 가르치는 자가 바로 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이단입니다.

이와 같은 절도와 강도들은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아버지 앞으로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내가 나온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해를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는데 생명인들이 저 자신의 것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9절의 ‘들어간다’는 동사에 담긴 뜻에 있습니다. 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오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믿으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것은 곧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고 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번째는 구원을 먼저 얻는 유익입니다. 이 구원은 미래에 천국만을 보장받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고, 의롭다 칭찬함을 받고 성화의 단계를 지나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두번째로는 안전함을 약속 받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들어가며 나오며’는 안전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과 시편 121편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축복과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아뢰라고 하십니다. 확실한 안전보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모든 염려를 떨쳐 버려야 합니다.

세번째로는 만족함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본문 마지막의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만족함을 말합니다. 양에게는 꼴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여기에서 만족의 뜻은 불신자들의 하나님을 멀리한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적은 것을 가지고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요, 근신과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는 한 방법입니다.

오늘 들어가며 나가며 이 영원한 말씀과 은혜의 꼴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양의 문이 되어 양이 드나들 때 양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양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보다는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이 이들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절도나 강도가 되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그런 자들을 따라가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의 양의 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6장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

■ 지원교회 탐방 - 학산교회

예배실 의자 마련 위해 헌금

바울전도회 제1지회



바울전도회 제1지회는 지난 7월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강원도 강릉에 있는 학산교회를 다녀왔다.

학산교회에서 시무하시는 김광호 목사님의 환영을 받은 전도회 일행은 학산교회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학산교회는 36년 전에 개척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전도사들만 계시다가 1년 전에 김광호 목사님께서 부임해 오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바울전도회 제1지회가 지원한 헌금으로 의자를 구입하여 예배실을 깨끗하게 단장해 놓았다. 잠시 후 우리들은 마을로 축조 전도와 노방 전도를 나갔다.

마을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농민들을 일일이 돌아보며, "하나님 믿고 천국갑시다."라고 외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또한 마을의 가정들을 방문하였는데 우리들은 주민들에게 전도하고, 준비해간 생활필수품들을 전달하였다. 특히 바울전도회 제1지회 회장인 이규선 집사님은 교회 간판과 대형시계를 기증하였다.

바울전도회 제1지회는 그날 저녁, 김광호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그곳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또한 회원들은 마을 모임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현교회에 인도된 지도 벌써 일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 부서를 다니며 말씀을 배우고 탁아부에서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얽매어 있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충현교회를 알게 하시고 또 탁아부에서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많은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 윤정이가 탁아부에 등록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울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탁아부 교사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낮이나 밤이나 찬송과 기도와 율동이 윤정이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5월에 뽑은 모범 어린이 선발 대회에도 믿음상으로 선발되게 하셨습니다.

탁아부의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로 날마다 준비하신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느낍니다. 작게는 3개월부터 만 2세 되는 어린이들이 예배 시간에 분당 예배 시간보다 더 조용하게 전도사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일

탁아부에서 딸과 함께 믿음 키워요

이 봉 순 집사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안 아이들의 행동과 말을 절제시키느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보는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며 신앙적으로 커운다 하면서도 정작 잘 드려야 할 주일 예배에서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경건하지 못하게 보고 오는 것으로 시간만 채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요즘 같은 거친 세파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 뿐일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학문도, 물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신앙적인 교육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의 뜻에 어긋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 유아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이가 탁아부에서 뿐만 아니라 일생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관직원으로 몸이 아팠던 윤정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9살난 오빠에게 "오빠 기도해 줘." 하면서 아픈 곳을 잡고 오빠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또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만 2세밖에 안된 아이가 무엇을 알까 하며 무시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순수하고 때묻지 않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탁아부에 탁아되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된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주일 동안 기도 속에서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윤정이와 탁아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포용력과 지도력 있는 성실한 신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복음 안에서 일으키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어려울 때 감사하며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 자신이 되기를 주님 앞에 바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힘을 다한 침묵! 예배



김학진 목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복되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상한 영혼이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감격과 감사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찬양하고 정성을, 정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며,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배가 경시되거나 혹은 형식화되는 풍조가 교회 안에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회개 운동이 힘차게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들이 세속화 되어 개인과 가정과 이 사회의 살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

라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서는 안됩니다. 복을 받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거나 못이룬 욕망과 소원 성취의 방법으로 의식을 행하여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요 예배드리는 것을 구경하는 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받고자 나오는 자입니다. 이러한 교인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는지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과 부활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어린 간구와 도고, 신앙고백, 찬송, 감사와 예물, 성찬과 세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설교)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 지혜, 소망, 능력을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축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축도를 받지 않고 나가는 교인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른 예배 순서를 중요시하지 않고 설교만을 중요시 하며 지각하는 것이 상습화되어 있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에 따라 예배드리는 잦아져도 기뻐해 버리는 교인은 예배의 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는 영혼의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가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교회에서 뿐 아니라, 내 뜻과 정성을 다한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을 기초로 한 나의 생활 자체가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들의 약점은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에 매우 경건

하고 헌신적인 분위기가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생활을 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진실하게 되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세속 사회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보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 위한 계속적인 자기 갱신과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어느 재수생이 세례를 받기 위해 예비 공부와 문답을 마치고 수요일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일찍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그 학생은 예배 시작 시간보다 5분이 지나서야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약자 좌석으로 가서 앉기를 권하였으나, 그 학생은 좀더 기도하며 준비한 후, 다음달에 세례를 받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바른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이 젊은이를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어 드리려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장 긴급히, 가장 먼저, 가장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나의 생활의 최우선권을 드려야 합니다.

다음호 세기동은 김광석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90아시아선교대회 개·폐회식 행사 일정 확정

'90아시아선교대회 준비위원회는 아시아선교대회의 개회식과 폐회식 행사의 일정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90아시아선교대회가 개최되는 8월 27일 오후 5시 55분부터 입장식이 거행된다. 밴드, 암송성경, 예배 인도자로 구성된 입장단은 선교관 입구에서부터 행진을 시작하고, 찬양대는 밴드의 행진 소리를 듣고 본당 돌계단 위에 정렬하여 선다. 이때 핸드벨 콰이어는 찬양대의 맨 앞자리에 일렬로 선다.

그 후 한국 국악선교회의 연주와 무용 공연이 이어진다. 무용이 끝나면 좌우 양측에서 두 무용수와 햇불을 든 두 어린이가 본당으로 들어간다. 이때 한사람 선교단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들이 암송성경을 메고 등장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시아가 하나로"가 소개된다. 각국의 고유 의상을 입고 국기를 든 각 나라 선교사 대표들이 서로 손을 잡고 암송성경을 중심으로 서고, 이때 청중들도 찬양대를 따라 찬양을 함께 하면서 손을 잡는다.

찬양을 계속하는 동안 안내 방송을 따라 핸드벨 콰이어, 암송성경, 각국 대표, 예배 인도자와 각국의 선교사들이 본당으로 입장한다.

본당 안에서는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계속하여 연주한다.

이렇게 개막되는 '90아시아선교대회는 4박 5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아래와 같은 순서로 8월 31일 오후 6시에 폐막된다.

폐회식에 입장할 때는 초와 받침이 든 봉투를 나누어준다. 폐

회예배 후에는 아시아선교대회의 실황을 담은 비디오를 상영한다.

비디오 상영이 끝나면 청중들은 퇴장하고 마당에서 자유롭게 담화한다. 이때 사회자는 서로 주소와 사인을 나누도록 안내 방송을 한다. 오케스트라와 청중이 함께 찬송을 부른다.

핸드벨 콰이어의 뒤를 따라 대회 임원, 각국 대표, 중현교회 목사들이 햇불을 들고 본당에서 나와 마당을 돌면서 청중들의 초에 집화를 하고 계단 위로 돌아가 선다. 점화하는 동안 중현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전도사들이 돌계단으로 올라가 십자가의 양측 날개 형태를 만든다.

주최측의 인사가 있는 후 모든 참가자들은 합창을 부른다. 이때 사회자가, 아멘찬양대의 합창 속에서 고별인사를 한다.

오늘 4부 예배 후 새가족 환영회 가져

우리 교회 새가족부는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교우들을 환영하는 모임을 갖는다.

오늘 4부 예배 후 갈릴리홀에서 열리는 이 환영의 시간에는 이종윤 위임목사가 환영의 말씀을 전하고, 각 교구의 목사님과 사, 교구장, 지역장이 인사를 하며, 새가족들은 자신들을 소개한다.

■ 탐방 - 법조인선교회

농아자와 고독한 자의 상담 위해 헌신

"사회가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라는 범죄사회학자 페리의 말처럼 인간이 생활하는 이 땅에는 언제 어디서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성도들의 법률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해 법조인선교회가 있다. 이 선교회는 지난해 3월 상담실을 연 이래로 매 주일 10여 명의 내담자들과 함께 "너는 멍어리하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하여 상담에 임하고 있다.

법조인선교회는 중현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면 누구나 내담자가 될 수 있으며 매 주일 낮 12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선교관 401호(요즘은 '90 아시아선교대회 관계로 402호를 임시 사

무실로 사용하고 있음)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군법무관 등으로 주일에 2명씩 교대로 봉사하고 있다.

내담자들의 상담 내용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세금 관계 등 여러가지로 다양하다. 그리고 이들의 상담내용은 언제나 철저한 비밀이 보장된다.

회원들은 내담자들이 상담 중 사건을 설명할 때에 일방적으로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설명하거나 지나치게 감정에 얽매이는 일을 삼가해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어려운 법적인 문제를 가진 모든 분들은 법조인선교회에 노크해 보시라.

지원교회 및 단체 추가 승인

당회는 전도위원회에서 요청한 지원 교회 및 단체를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다.

루디아전도회 제7지회는 전남에 있는 원성제일교회에, 한나전도회 제9지회는 전북에 있는 덕촌교회에 매달 5만 원씩을 보조하게 되었다.

마리아전도회 협의회와 마리아전도회 제12지회는 역삼전철역에

20인치 텔레비전을 기증하고, 한나전도회 협의회는 춘천소년원 원생들을 위해 개최하는 4박 5일간의 수양회에 60만 원을, 베드로전도회 제5지회는 서성온교회에 50만 원을 보조하게 되었다.

인천교도소의 고시생들에게 식비와 교통비로 25만 원을 보조하게 되었다.

또한 각 교구의 일꾼 개 전도회

는 지난 7월 29일에 파송되었던 하기 농어촌 전도대 여덟 개 팀에 각각 3만 원씩의 보조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우리 교회가 8월 현재 지원하는 교회는 지교회 5개, 지원교회 117개, 지원단체 101개로 늘어나서 총 223개로 집계되었다.

여름 성경학교 이번주에 모두 끝나

지난 6월 6일 새가족부를 선두로 하여 시작된 90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양회가 장년2부 수양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다.

장년4부의 수양회는 오는 14일과 15일 이들 동안 중현기도원

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 아래, 정규남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린다.

15일과 16일에는 영어예배부가 수양회를 여는데, 영어예배부는 이를 위해 40일간 연속기도회를 가지면서 준비하고 있다.

또 장년2부는 17일과 18일에 역시 중현기도원에서 수양회를 갖는다. 박형용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 수양회에서 장년2부 회원들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자"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된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3과 은혜의 수단(말씀)

성경: 딤후 3:14~17

요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찬송: 344, 500

제89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에 유효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법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함을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제90문 하나님의 구원에 유효하게 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마땅히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함으로 임하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어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의 생활로 실천하여야 합니다.

설 명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은혜의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죄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찰과 끝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히 4:12).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 래야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와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질 문

1.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고전 1:12)?
2. 들은 말씀을 얼마나 생활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까(히 5:11~14)?
3.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서로 돌아가며 토의해 봅시다.